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844호 현대불교

29

2011년 7월 13일(음 6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천당도 지옥도 바로 마음먹기에 달렸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만약에 내 몸이 이 천원에 와서 마음 공부 하기 이전부터 병이 들어서 여쩍 수 없이 몸이 없어지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즉 집은 망가져서 헐어 버려야 될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새로 짓는 집을 잘 지어야 하나까요. 그 안의 주인이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다 쥐고 자유스럽게 건질 수 있고, 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새 집을 지어야 하나까, 지금 집이, 오두막집이 아주 헐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겁내지 말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훌쩍 벗어 버리면 됩니다.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고, 벗어 버릴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이렇다면 이 공부 하나나죠. 사실은 마음대로 못 사는 것도 마음대로 사는 거고, 하하하... 마음대로 사는 것도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포착만 한다면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감사함과 더불어 크나큰... '하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하고서... 허, 그런 말로 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육을 먹어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말입니다. 육을 살리기 위해서 육 속에 있는 중생들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 하하하... 그래서 안으로는 먹이고 거죽으로는 살리고자 해서, 지금 먹여 살리려면 어떠한 것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용기를 바로 내면에다 두세요. 지금 세상에 육신이 못 먹어서 죽을까 봐 애쓸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봐요. 전 그걸 고문 받듯이 많이 배웠어요. 하하하...

옛날에, 하다못해 콩 한 알깡이 이렇게 따서... 다 거둬 가고 줄기에 콩이 하나든지 들이든지 붙어 있어요. 다 베어 가고 나머지가요. 고춧잎과 고추를 다 따 간 뒤에도 조그만 고추들이 붙어 있죠. 이슬 맞기 전에도 그렇고 이슬 맞고도 그렇고, 그것을 무시코 따서 입에 넣었다가 이 공부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했던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죠. '너, 누구를 먹여 살리려고 그러느냐? 너를 먹여 살리려고 그러느냐, 네 육 속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어떤 것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남의 것을 따서 내 육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이런 고문

말이에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렇지 않으면 육신에서 그러느냐?' 그런 문제 등등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야, 참!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없다고도 볼 수 없고, 이견도 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러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께서도 '가리지 않고 벌어서, 어떠한 나쁜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해서 잘 먹고 잘 먹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은 갖지 마세요. '너만이 스스로 우리 가정을 다 살릴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부지런히 울게 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 마음속에서 다 응해 주는 겁니다.

마음이 요상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이 천차만별로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인 줄 아

시죠? 하하하... 마음은 하나인데 말입니다. 에너지 통은 하나인데 말입니다.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용(用)은 너무 많습니다. 이렇다고 끌어다 쓰고 저렇다고 끌어다 쓰고, 이거를 돌린다 고 끌어다 쓰고 이거를 한다고 끌어다 쓰고, 밥을 지어 먹는다고 끌어다 쓰고 이러죠? 천차만별의 끌어다 쓰는 그 용은 지금 우리의 에너지 속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 양도 용도에 따라 정도에 맞춰서 나오고, 요런 그릇에 다 밥을 지으면 그 그릇에 맞게 에너지가 다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마음낼 수가 있는 건데 왜 마음대로 마음을 낼 수가 없느냐는 얘깁니다. 참 요상하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이 관습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거죠. 수억 겁을 진화해 오면서 그 모든 사람이 잡아먹히

고 잡아먹고 살아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신을 잡아먹고 잡아먹고 이러면서 또 삽니다. 그러한 습관이 잔뜩 담겨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이렇게 되면 죽는다, 내가 돈을 못 벌면 우리 가정이 망한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질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뛰는 사람을 믿어라 이겁니다. 발 없는 발로 뛰고, 손 없는 손으로 하고, 모든 것을 두뇌 아닌 두뇌로써 안으로 통신을 하고 바깥으로 통신을 해서 모두 작용을 하는 그놈을 믿어라 이겁죠. 나는 뛰어 봤자, 한 걸음 밖엔 못 뛰어! 그러나 '진짜 나'는 여기서 미국을 뛰어도 한 걸음이요, 태양계를 뛰어도 한 걸음이요, 은하계를 뛰어도 한 걸음이요, 어느 혹성을 뛰어도 한 걸음밖에 안 되니까, 체가 있는 우리 육신의 걸음 한 걸음과는 아주 천지 차이

니까요.

마음! 고놈이 아니라면... 고놈이라고 한다고 해서 고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또, 고놈도 될 수 있고,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친구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고 법신도 될 수 있고, 화신도 될 수 있고 약사도 될 수 있고, 물에 가서는 용신도 될 수 있고 들에 갈 때는 지신도 될 수 있고, 내가 가는 대로 내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거는 바뀌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위로도 아래로도, 높게도 낮게도 보지 말고 그냥 아주 떼려야 뗄 수 없는 친구로 생각해도 돼요. 세상에 고놈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판 데서 갖다 줘니까, 뺏어 갑니까? 내가 하는 대로 입력이 되었다가 나오는데 남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서 병난 것은 마음속에서 해결해야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모르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영계성'이라는 것도 대부분 내 몸속의 악업 선업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든지 나를 좋게 해 주려고 그렇든지 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끄달려서 돌아가지 말고 속지 마라. 네 마음이 있지 않느냐. 마음으로써 그렇게 일어나는 그것을 다 잠재워라. 이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을 한마음으로써 대치를 해라. '모든 것은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라.' 하고, 속지 말고 잘 다스리며 나가라 이겁죠.

속는다 하면...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도 했죠. 수좌들이 동짓날 팔죽을 쑤는데 팔죽이 가마솥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그냥 방울이 나오죠. 이걸 내가 몇 차례씩 얘기합니다. 부글부글 끓어서 방울이 나오는 거를 '요것도 문수란 놈, 요것도 문수 놈, 요것도 문수 놈!' 아, 이려고 주격으로 들이쳤는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안 해도 자기는 알고 있지만, 다른 수좌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죠. '네 몸속이 즉 팔죽이다. 네 몸뚱이는 팔죽 솥이다.' 그러면 네 몸뚱이 속에서 그렇게 끓어서 나오는 것을, 한군데서 나오는 것을, 나오는 대로 각각인 줄 알고, 나에게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를 골이듣고 자꾸 휘말리니까 '요것도 그놈,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www.hyunbulshop.com

- 본문 중에서

자기 의식에 속지 말고 한마음으로써 잘 다스리며 나아가라

29면에서 계속

요것도 그놈. 문수란 놈!' 하는 거죠. 이게 생각을 내는 거니까 문수거든. 법이거든요. 생각을 내기 이전은 부처지만 생각을 낼 때는 반드시 이게 작용을 하는 거니까, 팔각이 풀어오르는 것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문수, 조것도 문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한 몸 속에서 나오는 그 작용을 어떻게 이것이 따로 있고 저것이 따로 있다고 볼니까. 모두 하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야잖아' 하고 거기다 그냥 되맡겨 놓으면 되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이 됐던 거에다 입력을 다시 하는 게 되니까 앞서 입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속지 말고 모든 걸 거기다가 놓을 때 해결되는 거죠. 또 생활을 할 때는 모든 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다는 어떠한 물이 들어와도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단 말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 거죠? 받으면 그대로 바닷물이지만, 이 물 저 물 섞었다 해서 딴 물이라고 이름 지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 하면.

그러니 이름이 다른 데서 나오고 행동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천차만별의 행동, 말,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전부 내 몸속의 업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 그냥 마음으로 다스려서 거기다 맡겨 놓고 좋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언짢은 건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 하고 놓고,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자꾸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남): 무더운 여름에 법형제 여러 법우님들을 위해서 무상법문을 설해 주시니 무척 감사할 따릅니다. 제가 항상 공부할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큰스님께 말씀드리고 가르침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요새 시중에 모 스님의 수필집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제목이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책의 제목을 대했을 때 순간 생각이 '저승에 갈 때 가지고 가기는 뭘 가지고 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여 분 지나서 집에 오는 도중에 들판에 매어져 있는 염소를 보는 순간 '아, 저게 바로 저쪽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쪽이 따로 없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주인공 자리에 넣고 다시 '아, 바로 이 느낌이, 공부 가 되는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린 상태에서 시간이 한 한

달 정도 흘렀는데, 어느 날 아침 식사하기 전에 세수하려 나왔는데 불현듯 '저승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지?' 하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승도 없는데 무슨 저승이 있어?' 하고 대답을 하고 보니까 제 스스로 '아, 이게 공부 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짜 스스럼없이 튀어나온 말이지만 이 책의 제목을 통해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공부 가 되는 한 과정으로 보아야 되는지요?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제가 느낀, 이승이 없기 때문에 저승 또한 없는 것인지, 그런 개념 자체도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어 나왔습니다.

큰스님: 마음이라는 마음을 요상하게 생각을 해서 끌고 가지 마시구요. 아주 그렇게, 소탈하고 아주 깨끗하게요. 이승도 없는데 저승이 어딴습니까? 저승도 없는데 천당이 어딴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먹고 행하고 사는 데에 바로 저쪽도 천당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가능치 않은 게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그렇습니다. 딴 데서 태어났습니까? 이 자리에서 태어나시죠? 죽는 것도 이 자리에서 죽죠?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데에 인과로써 업식만 짊어지고서 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근본과 더불어 같이 부합이 돼서,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업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고(苦)라는 소리가 나온 것이 바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주어진 대로 이 현실에 자꾸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천당도 저쪽도 바로 마음먹기에 달렸단 이런 거죠. 그러니 내가 없는데 가져갈 것은 어딴으며 가져올 게 어딴습니까?

질문자(남): 오늘 큰스님께 가르침을 청하고 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일이 오늘에 와서 과보로 나타날 때 그 과보가 오늘 의 나에게 바람직한 일이라면 몰라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깊은 회한에 잠기게 됩니다. 큰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놓고 가라." 하십니다. 그러나 당면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공리 지 공리를 하기 마련인데 그럴수록 과거에 대한 회한은 짊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 일 저 일 공리하는 것과 놓고 가는 도리는 생활 가운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그런데 과거라고 하지만 어저께도 과거고, 한 시간 전도 과거고, 삼천 년 전도 과거입니다. 그런데 삼천 년 전과 어저께와 한 시간 전이 같습니다. 이게 한 찰나입니다. 내가 항상 구정물을 바래 쓰라고 그러죠? 그냥 거기다 놓으란다고 그냥 맡겨 놓기만 해서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기계를 잘 고쳐서 끼워야 될 텐데 기계를 고쳐지도 않고 그냥 갖다 끼우면 이게 들

지, 그게 증오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정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맑은 물로 대치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돌려 놔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이렇게 힌트를 주고 가르쳐서 말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하하하...

질문자(남):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마음공부에 관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성품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참성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둘째는 성품을 본 후에 또 걸림이 있다 할 때는 어떻게 뒤편이 하는지요.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큰스님: 이게 여러분이 아리송해서 몰라서 그러시지, 우리가 잘못하든 잘하든 그냥 거기서 생각나서 한 것은 후회를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냥 자기 성품 속에서... 그릇이 작은 데서 나왔든 큰 데서 나왔든, 잘못하는 마음으

로 나왔든 잘하는 마음으로 나왔든,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를 모르니까 그냥 그 마음이 나온 거거든요. 내가 잘 보고 잘 듣고 판단을 해서 한다는 게 그만 그렇게 잘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서 다 나온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땐 '아이구,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거를 이렇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후회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알아지는 게 있죠. '이건 다시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얹이 생기죠.

그러니까 잘못 나왔든 잘 나왔든 그것이 우리 인생관에 의해서 자기를 리드해 나가고, 즉 말하자면 잘 배우게끔 이끌어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잘 생각을 못 해서 내가 이렇구나. 잘 생각을 할 것...' 이렇게 후회를 하지 마세요. '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배움이, 느낀 것이 참 많았다. 경험이 많았다. 그러니 이 경험을 준 것도 참 감사하구나.' 하고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구덩이에 빠지게끔 하지를 않아요. 모를 때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주 자동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게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부에서 심안으로

이렇게, 육안을 통해서 보게끔 만들거든요. 심안으로 듣게끔 만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주, 잘못됨이 없는 그런 진로로 이끌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맡겨서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품은 그렇게 쓰는 성품이나 이렇게 쓰는 성품이나 성품은 둘이 아니에요. 마음내기 이전은 똑같은데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죠. 그런 거를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돌로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너로 인해서 경험을 얻었으니 감사하구나.' 이렇게 해서 또 거기다 감사하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육안으로 보게끔 하지 말고 심안으로 보게, 네가 보고 내가 할 수 있게끔 해라.' 하고 거기다 맡겨 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족하죠. 그 성품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악도 거기서 나오고 선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질문자(남): 참, 더우신데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슴 깊이 새기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렇게 하셔야죠.

질문자(남): 예.

큰스님: 그렇게 해서 누굴 줍니까? 자기가 갖는 건데... 하하하... 또 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사회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큰스님: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하고 끝내죠. 이거요,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세워 보이시고) '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는 두 글자가 고정되게 주어지지 않구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난 아무게 아저씨만 되는 게 아니다. 아무게 남편만 되는 것도 아니다. 아무 게 아들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거 말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구나! 나는 없으니깐 어떠한 업보가 걸릴 것도 없고, 어떤 애고 생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불을 지르가 없구나.' 이런 것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20년을 앓다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낫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만날 되풀이하는 사람이 그랬대요. 하하하... '아, 병 불을 지르기가 있어야 병을 고치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즉시로 병 불을 지르가 없다는 걸, 자기가 없다는 걸 알고는 병이 그냥, 가는 중에 나왔더라요. 하하하...

이렇게, 육안을 통해서 보게끔 만들거든요. 심안으로 듣게끔 만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주, 잘못됨이 없는 그런 진로로 이끌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맡겨서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품은 그렇게 쓰는 성품이나 이렇게 쓰는 성품이나 성품은 둘이 아니에요. 마음내기 이전은 똑같은데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죠. 그런 거를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돌로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너로 인해서 경험을 얻었으니 감사하구나.' 이렇게 해서 또 거기다 감사하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육안으로 보게끔 하지 말고 심안으로 보게, 네가 보고 내가 할 수 있게끔 해라.' 하고 거기다 맡겨 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족하죠. 그 성품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악도 거기서 나오고 선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질문자(남): 참, 더우신데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슴 깊이 새기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렇게 하셔야죠.

질문자(남): 예.

큰스님: 그렇게 해서 누굴 줍니까? 자기가 갖는 건데... 하하하... 또 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사회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큰스님: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하고 끝내죠. 이거요,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세워 보이시고) '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는 두 글자가 고정되게 주어지지 않구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난 아무게 아저씨만 되는 게 아니다. 아무게 남편만 되는 것도 아니다. 아무 게 아들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거 말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구나! 나는 없으니깐 어떠한 업보가 걸릴 것도 없고, 어떤 애고 생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불을 지르가 없구나.' 이런 것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20년을 앓다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낫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만날 되풀이하는 사람이 그랬대요. 하하하... '아, 병 불을 지르기가 있어야 병을 고치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즉시로 병 불을 지르가 없다는 걸, 자기가 없다는 걸 알고는 병이 그냥, 가는 중에 나왔더라요. 하하하...

* 위 법문은 1993년 7월 4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 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불환희의

B4양장/247쪽/100,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지난 1986년 진승공예대전에서 「금니 金尼 부 모은중경」 병풍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금어의 맥통을 이어 받았음을 입증한 박정자 선생의 사불수행 25년과 신심에서 우러나온 불보살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박정자 선생님의 사불교본 시리즈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국내 최대 크기(4절) 사불 안내서

초를 전부 새로 그려 사불을 하는 모든 분들이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사불교본(1)
탱화정초, 대부모은중경, 팔상도, 비천도
4절지/249쪽/50,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영산회상도를 시작으로 부모은중경의 내용과 팔상도의 내용을 실었으며 비천도의 내용도 담고 있다.

사불교본(2) 관세음보살, 53불도
4절지/269쪽/55,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수월관음도를 포함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나타신 모습과 나무보광불에서 나무일체법상만왕불까지 53불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불교본(3) 만다라
4절지/89쪽/20,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만다라화는 언뜻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상화하여 단청이나 불화에 문양을 넣어서 상서로운 길상의 의미로 사용한다. 약 40종의 만다라화를 담고 있다.

사불교본(4) 삼신불, 팔대보살
4절지/55쪽/15,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비로자나불을 포함한 삼신불과 관세음보살로 시작되는 팔대보살의 모습을 비롯해서 화엄성중과 시왕의 모습을 사불할 수 있게 하였다.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통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www.unjusa.com